

같은 藥인데... 지역별 가격차 2배 이상

셀리스톤지, 여수 2700원 강진 6000원 3000원 짜리 소화제 옆 약국선 5000원

약사가 가격 산정 탓에 물류비 높은 도서·산간지역 더 비싸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연고나 감기약 값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시설 접근도가 떨어진 도서나 산간벽지 지역의 약품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품 중 지역별 가격차가 가장 큰 것은 연고인 '셀리스톤지(15g)'로 여수에선 2700원이지만 강진에선 6000원에 판매되는 등 3300원이나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가운데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각 4종, 영양제 7종, 연고 3종 등 약의 효능별로 많이 소비되는 품목 50종을 선정, 지난해 하반기 전국 2500개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이다.

종합감기약인 '하벤허브캡슐(10캡슐)'은 광주시 남구에선 1500원이지만 북구와 서구 일부 약국에선 3000원에 팔리고 있었고, 전남의 경우 담양·나주는 1500원, 영광·완도 3000원 등 최저가와 최고가 차

이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과용약인 '토비콤에스연질캡슐(60캡슐)'도 광주시 북구와 장흥에선 2만6000원, 광주시 남구·완도·광양의 일부 약국에선 4만원에 팔려 똑같은 의약품이지만 1만4000원(1.35배)이나 더 비쌌다.

영양제인 '베콤씨에이스(100정)'는 영암과 여수지역 일부 약국은 2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해남과 장흥에선 3만원까지 가격을 요구하는 등 1.5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약국들 사이에서도 가격 편차가 심했다.

광주시 서구 한 약국은 관철염 패치인 '트라스트패취'를 광주지역 최저가인 25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인근 또 다른 약국에선 광주 최고가인 4000원으로 1.6배 차이가 났다. 광산구도 정장제 '비오비타과립(120g·1병)'이 1만3000원인 반면,

인근 약국에선 1.7배 비싼 2만3000원이었다. 영암에서도 소화제 '백초시립플러스(100ml·1병)'가 최저 3000원인 반면, 인근 약국에선 5000원(1.67배)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처럼 약국마다 똑같은 의약품이지만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판매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국이 많지 않고 물류비가 비싼 도서·산간·의료취약지역의 소규모 약국들은 타 시·도에 비해 비싼 판매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관계자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약을 사먹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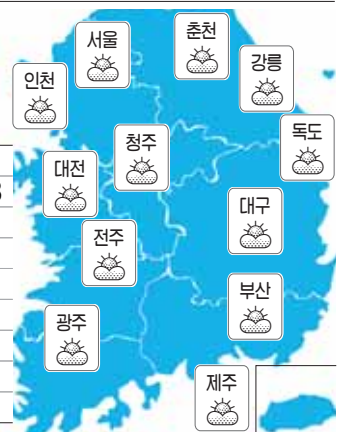
해돋이 06:37 달뜨기 06:17
해질녘 18:44 달지기 18:40

주말엔 봄꽃 나들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9/18	보성	구름많음	7/16
목포	구름많음	7/15	순천	구름많음	11/18
여수	구름많음	10/16	영광	구름많음	7/16
나주	구름많음	8/18	진도	구름많음	6/16
완도	구름많음	8/16	진주	구름많음	8/21
구례	구름많음	9/19	군산	구름많음	7/17
강진	구름많음	8/16	남원	구름많음	8/20
해남	구름많음	7/16	홍산도	구름많음	7/12
장성	구름많음	7/17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부	남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남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
서부	남바다(서)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 생활지수

수면	100
운동	70
빨래	70

◇ 주간 날씨

날짜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날씨	☀	☀	☀	☀	☀	☀	☀
강수량	8/20	4/15	1/14	0/15	1/16	3/17	6/18

범죄피해자 기금 마련

오늘 '희망나눔바자회'

광주경찰, 광산구 소촌동 청사앞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광산구 소촌동 청사 앞마당에서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나눔바자회'를 연다.

이날 바자회에는 이마트 광주호남본부에서 제공한 문구, 장난감 등 제품 1만여 점이 이마트 매장 판매가보다 70~9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제품별 가격은 레고 블록 쌍기(6만원→1만원 수준), 욕실용 선반세트(3만원→5000원), 책상용 스탠드(3만원→3000원) 등이다. 제품에 따라서는 미세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격과 품질 면에서 고객들이 크게 만족할 수준이라고 이마트 관계자는 전했다. 바자회는 오후 2~5시까지 열리며 현금으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문의는 광주지방경찰청 062-609-2717. /김형호기자 khh@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앞줄 가운데) 등 전국의 교육감들이 19일 경남 창원시 풀만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챔피언스필드 매점 술 판매 확대 '제동'

도시계획위, 시설 변경안 유보

광주시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에서 술 판매 범위를 확대했지만,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시가 제출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수익시설 변경안에 대해 "기아구단측이 수익평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

익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보(보류)했다.

시는 현재 11곳의 휴게음식점(편의시설) 중 1층과 5층 각 2곳씩 4곳(130.8㎡)을 일반음식점(수익시설)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면 술 판매가 가능해 야구장 매점측은 생맥주와 통닭 등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8월 도시계획 심의에 올려졌으나 '수익시설 변경에 따른 시 재정확충 기여 방안 강구' 조건으로 심의가 한차례 유보됐다.

시는 KIA타이거즈측과 협의해 올하는 생맥주 판매금액 3%를 복지시설 기부하고, 내년에는 2015년 판매량에 근거해 정액을 기부하는 조건까지 달았지만 다시 유보된 것이다.

야구장 3층에 1260㎡에 달하는 2곳의 일반음식점이 있던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술 매출로 이어지지 않

자 추가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달 초 밝힌 안전하고 쾌적한 야구장 환경 조성 및 성숙한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한 'SAFE 캠페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광주일보 19일자 7면>을 받고 있다.

캠페인의 주 내용은 야구장 내 술 및 캔·병·1ℓ 초과 페트병 등의 반입 제한이다. 더욱이 이 도시계획변경 주체가 광주시로 야구장 측의 수익확대만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안 가거초교 전교생들 참사 해경에 감사편지

"아픈 친구 도와주려다 목숨까지 바친

해경·유가족 고마움에 눈물로 씩니다"

담임교사도 희생자 위로의 글

신안 가거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은 편지를 써 서해해 양경비안전본부로 전달했다.

학생들은 지난 13일 맹장염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를 병원으로 옮기려다 헬기사고로 조종사 등이 변을 당하자, 직접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19일 오후 전달했다.

전교생이 10명뿐인 가거초등학교, 아이들이 또박또박 써내려간 편지엔 유가족에 대한 위로는 물론, 그동안 도움을 받아온 해경에 대한 감사와 표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서남단에서 낚고 자라면서 해경과의 각별한 인연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가거도 학생들은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색현장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학생은 편지에 "동생을 위해 나쁜 날씨에도 출동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 동네사람 모두가 걱정

하고 있습니다"며 "하루빨리 실종자를 찾아 가족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찾고 있으니 힘내세요"라고 적었다.

악천후 속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목포해경 함정에서 태어났다는 남학생은 "아픈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안좋은 날씨에도 달려오다 사고를 당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아저씨들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가거초등학교 1~2학년 담임 박준현(40) 교사는 지난 18일 청와대와 국민안전처 자유게시판에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와 위로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200억 한정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교고등학교 옆)